

# 초록 물결 넘실... 보리밭 사잇길에 사랑도 넘실



● 14회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지난 22일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 20여만 평 드넓은 보리밭에서 개막했다.

##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 주제

### 22일 개막... 다음달 14일까지 경관농업 축제의 장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로 꼽히는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지난 22일 개막했다.

올해로 14회 짝을 맞은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이라는 주제로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 20여만 평 드넓은 보리밭에서 내달 14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보리밭 사이사이에 방문객들이 더욱 걷기 편하게 청보리밭 사잇길을 정비했으며 ‘이야기가 있는 테마길’이 마련되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더했다. 한 눈에 청보리밭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잉어못과 호랑이암대밭, 도깨비 숲 등 구전되는 이야기를 따라 걷다보면 즐거움이 배가된다.

보릿골 체험마당에 마련된 편백나무 공예품체험과 비즈공예품 치현, 보리관련 음식들도 풍부하며 보리피리 불기와 같은 토속행사와 보리빵과 보리쿠키, 보리관련 음식 만들기 등 체험과 볼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옛날 교복과 전통한복과 같은 테마 북 대여와 관광마차, 느리게 가는 우체통 등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 속에 축제를 즐기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 전통 농경유물을 전시하고 농경생활을 시연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축제장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경관농업 대표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보리밭 사잇길과 유채꽃밭을 걸으며 싱그러운 추억도 쌓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청보리밭 축제에 많은 분들이 꼭 와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대표 경관농업 축제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속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고창군의 봄은 눈부신 초록빛이다.

30여만 평 광활한 대지 위에 손짓하는 고창 청보리밭은 마음까지 초록빛으로 물들일 듯 시원하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대표 축제이며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농협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상하농원이 후원해 열린다.

30여만 평의 넓은 대지에 식재된 청보리를 통해 바쁜 일상에 쫓겨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청보리의 상쾌함을 제공하여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매년 40여만 명이 찾아오는 봄철 대표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



탁 트인 공간에 펼쳐진 청보리의 초록 물결과 노란 유채꽃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곳마다 하나의 작품이 된다.

###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이번 축제는 보리밭 사이사이 '이야기가 있는 테마길'을 마련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망대와 잉어못, 호랑이왕대밭, 도깨비숲 등 구전되는 이야기를 따라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릿골 체험마당에서는 편백나무 공예품 체험, 비즈공예품 체험, 보리관련 음식 등을 만들어 먹어보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보리피리를 만들어 불어보며 옛 추억을 그리고 어린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 볼 수도 있고 널뛰기, 굴렁쇠, 투호 등 전통놀이와 추억의 게임 등도 마련되며, 주말에는 청보리밭 농악놀이가 마련돼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한복, 교복 등 다양한 테마복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여 프로그램과 청보리밭 내 관광마차, 그리고 느리게 가는 우체통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테마복 체험은 고운 색색깔의 전통한복과 옛날 교복 등으로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더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재미를 높이고 청보리밭 축제를 더욱 빛낼 것으로 보인다.

### 추억 속 힐링의 시간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농업을 식량산업으로만 생각했던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꾼 우리나라 경관농업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고창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향토 산업과 연계한 녹색산업형 축제로 1차 산업인 농업을 관광산업까지 확대시켜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가져와 2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봄 냄새 물씬 풍기는 보리밭에서 어른들은 어릴 적 옛 향수를 되새기고, 아이들은 미래에 기억될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푸르른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보자.

/고창=김태완 기자

■ 오는길 :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 158-6 (내비게이션에 고창군 공음면 '선동초등학교' 검색), 문의 : 063-562-9897, 홈페이지 <http://chungbori.gochang.go.kr>

### 고창군 가볼만 한 곳



① 윤곡습지



② 고인돌박물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린다.

여행과 운동에 딱 좋은 계절이다. 자연을 벗 삼아 눈과 입이 모두 호강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이번 봄은 고창군 아산면 운곡람사르 습지에서 생태체험을 해보자.

고창운곡람사르

습지는 1980년대까  
지 습지를 개간해  
논으로 사용해 왔  
으나 1980년대 초  
부터 운곡저수지의  
물이 당시의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냉  
각수로 공급되면서  
30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폐경지  
로 유지됐다. 이 시  
간 동안 사람의 손  
이 닿지 않은 채 자  
연적 천이과정을



○ 운곡람사르습지 약도

거쳐 습지생태계가 원시 습지 상태로 복원됐다.

동산지형 저층습지인 운곡람사르습지는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원  
이 없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와  
조류 등 총 86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11년 환경부로부터 국가보호습지, 국제 람사르협회에  
등록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에서도 손꼽히는 생태관광명소다. 이곳은 습지 본연의 가치  
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보전해 자연생태체험을 하기에 그만이다.

운곡서원과 용계마을 사이를 트랙터 열차를 타고 둘러볼 수도 있  
고, 고려 전기 청자 작업장이었던 용계리 청자 도요지, 조선후기 창  
건대 유학자들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위패를 모신 운곡서원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 이를 재현해 놓은 선사체험  
마을, 고인돌박물관까지 이어지는 탐방을 통해 역사와 자연생태제  
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

고인돌박물관에서 운곡람사르습지까지 약 4.6km로 잘 정비된 탐  
방로를 따라 걷다보면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습지의 모습  
과 생태연못, 생태 숲을 관찰 할 수 있다. 걷기 좋은 계절, 가벼운 마  
음으로 생태관광을 떠나보자.